

아시아 — 수력발전 댐 건설 시장의 위축

1. 아시아의 높은 전력수요 증가

정유 사업자들의 말처럼 그들만이 아시아에 대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을 생각해 보자. 이론적으로 이것은 화려한 사업이어야 한다. 발전도상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전력수요는 연간 약 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내의 수력발전 포장용량은 엄청난 것이다. 즉 조사된 바에 의하면 7억 3500만k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위치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있는 것이다. 이 포장 수력용량은 기설 수력발전소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합한 발전설비 용량의 무려 다섯 배나 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0억달러 규모의 댐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어 케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및 전자회사인 지멘스는 아시아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과거 5개년간 매년 평균 1100만kW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비해서 앞으로 5년간은 매년 1250만kW의 새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전기 생산 산업계를 볼 때 수력발전 기기의 연간 제조능력은 1800만kW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놀랍게도 과거 5개년간에 발전기와 같은 수력발전용

기기의 가격들이 30%나 하락하였다.

2. 자금 조달과 환경주의자들

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아래의 두 가지 장애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다 — 즉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환경주의자들의 분노라는 두 가지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바쿰 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처음 제외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ABB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가 주도하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업체와 55억달러의 댐을 건설하는 계약이 겨우 1996년 10월에야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주의자들은 아직도 이 댐이 싱가포르 크기만한 저수지를 조성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나무와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벌목과 이주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불평이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적인 공공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형 댐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덜 열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최근에 프로젝트의 충격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네팔의 댐에 대하여 공여하기로 되어 있던 차관을 취소하였다. 1996년 초에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투자금액이 250억달러에 이르고 100만명 이상의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중국의 쑤샤 수력발전소 댐을 위한 기자재 생산품 공급에 관심을 가진 미국 기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3. 치열한 수주 경쟁과 이익 마진의 고갈

아시아에서 신설되는 가스, 유류 또는 석탄 연소 화력발전소 3개소 중 1개소는 독립발전사업자(IPP)들의 자체적인 자금을 조성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자금 제공자와 투자자들은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대규모 댐은 계획과 건설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여기에 비해서 가스 연소 발전소는 단지 18개월이면 공사를 끝내고 발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연료에 의한 화력발전소의 수요가 수력발전에 비해서 두 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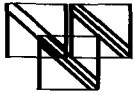
마지막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많은 부자 나라들이 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댐 건설 기업체가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각각의 계약은 흔히 지멘스, ABB, 일본의 미쓰비시 그리고 영·불 조인트벤처인 GEC 알스톰 등을 포함한 동일 그룹의 기업체 간에서 경합을 벌이게 된다. 더욱 사태

를 나쁘게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즉 중국의 발전소 업체인 하얼빈과 러시아의 한 터빈 제조업체인 LMZ 등과 같은

기업체들이 이제 그들 나라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해외에서 경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댐 건설 사업에서의 이

익금이 모두 말라버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자료 : 「이코노미스트」, 1996.10.12)



아시아 — 싐사(三峽)댐과 바쿤댐의 경우

1. 엄청난 규모의 싐사댐

만일 잘 알려져 있는 구두의 상업광고가 서로 경쟁을 할 때 이미지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맞는다면 아시아의 가장 큰 댐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환경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젝트들이 도움을 주게 될 많은 사람들도 불신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꺼안음으로써 기대되어야 할 은행가 및 건설업체들도 거리를 유지하며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재생 가능하고, 곁으로 보기에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그와 같은 나쁜 평판을 받게 되었는가? 중부 중국의 양쯔강에 축조되는 싐사댐은 270억달러의 투자금액을 소요로 하며 조성되는 저수지는 1820만 kW의 발전설비를 가지게 되며 이에 수반하여 60,703헥타르의 땅과 150개 마을을 수중에 가라앉게 함으로써 100만 명 이상의 주민에 대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또한 사라와 크의 바쿤댐은 240만kW의 발전설비를 위하여 식물 800종—67종은 보호대상종임—을 수중에 가라앉게 만든다.

2. 바쿤댐의 환경 평가서

이와 같은 대가는 가 환경주의자들의 피를 끓게 하여 쉽게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거대한 댐은 눈에 거슬리며, 아시아의 몇몇 가장 뛰어난 경치를 망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996년의 관광 계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1997년 초에 댐의 공사자들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싐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양쯔강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적인 충격의 평가는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떤 댐에 대하여는 그들은 다만 의혹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바쿤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서의 경우 동부 말레이시아의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만, 그것도 처음에는 하루에 한시간씩만 열람할 수 있었으며 복사는 할 수도 없었다. 공공의 분노는 건설공사 계약이 공개입찰도 없이 마하티르 모하마드 수상이 칭찬하여 마지 않는 실업계의 거물인 텅 펙 킴씨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체결이 되었을 때 더욱 격앙되었다.

3. 싐사댐의 홍수 조절기능과 100만명의 이주

“바쿤에는 적절한 댐의 크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소리에 근무하는 바쿤의 당해 비정부조직의 대변자인 쿠아 키아 승씨는 화가 치밀어 썩썩거리면서 말한다. 쿠아씨는 보다 작은 규모인 5만kW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쿤 프로젝트는 초기에는 여섯 개의 아담하고 적절한 댐을 강을 따라 차례로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댐은 그 우수한 기능으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바쿤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댐은 없어서 안되는 중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싐사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매년 몇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홍수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홍수조절은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환경적 요소에 불과하다. 다른 요소로는 사람과 동물의 이주, 물의 질, 침식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파손과 소멸 등이 있다.

4. 미국과 세계은행의 외면

그러나 많은 자연애호가들에게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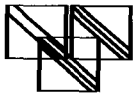
서 “좋은” 댐 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 물—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삼림에 의해서 마련된다”라고 한 바쿰 주민은 말한다. 또 “우리에게 학교, 도로 그리고 진료를 주시오. 댐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발이 아니오”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와 같은 평가 뒤에 있는 감정은 이따금 기업체의 의사 결

정 장소인 이사회 회의실까지 들어오는 길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회사는 댐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점점 계산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미국은 이들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빈약한 이미지를 때문에 댐 프로젝트에 미국 회사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말쑥 많은 댐 프로젝트를 가까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주의자들은 댐 건설의 경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는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아시아 위크」 1996.11.15)



오스트레일리아 — 규제 완화와 가열되는 경쟁

1. 견습공에서 최고 경영자로

렌 블리셀씨는 항상 야망을 조심스럽게 억누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오스트레일리아 가스·전등 회사(AGL)에 38년 전에 배관견습공으로 입사하였을 때 그의 평생 목표는 감독이 되는 것이었다. 그가 고객관리부의 고객서비스 매니저로 승진함으로써 그의 시야가 한 눈금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 회사의 회계부서로 전임된 후 그는 회계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한 발짝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발짝의 방식은 분명하게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는 올바른 방법이었다. 그는 드디어 1990년에 AGL의 매니징 디렉터가 되었다.

2. 한 발짝 다음에 또 한 발짝

이제 블리셀씨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159년이나 된 시드니 주식 거래소 상장회사인 이 회사에게 가장 큰 도

전의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가스 시장의 규제 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호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있던 이 산업이 1996년 말 이전에 경쟁의 거친 바람 속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GL이 공급권을 가지고 있던 동부 지역이 첫번째로 규제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전력회사의 경영자들이 이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매의 눈초리처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경제를 보다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광범위한 자율화 과정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방침을 꾸준히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의 개편은 정부가 이자율 상한치를 철폐하고 환율의 자율화를 채택한 1980년대 초반에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1996년 초에 선출된 자유당 정부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퍼스의 공항을 매각할 계획

을 세워 놓고 있으며 1997년에는 많이 기다려지고 있던 통신사업의 거대 기업 텔스트라의 지분 참여 공고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3. 광범위한 민영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주 차원에서는 빅토리아가 1995년에 발전사업과 배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하였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많은 물처리 플랜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민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시드니, 캔버라 및 뉴사우스웨일스의 다른 지역에 70만명의 고객을 가지며 연간 8억 86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7억 300만달러)의 수입을 갖고 있는 AGL은 크고 작은 민간 부문 회사들 중에서 규제완화에 의해서 그의 평온하고 무풍지대였던 사업 여건이 개방됨으로써 이제 모든 방면으로부터의 방해를 받게 되는 회사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블러셀씨는 그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 많은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당시의 노동당 정부는 그가 6년 전에 AGL의 매니징 디렉터의 자리에 앉은지 오래되지 않아 가스 사업의 규제 완화의 의사가 있음을 공고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는 급박한 변화를 회사의 사업 확장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4.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블러셀씨는 말한다. 블러셀씨는 금테 안경을 썼으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뒤로 빚은 거구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 편안한 아저씨와 같은 태도 뒤에는 정확성에 대한 정열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업 영역에서 새로 참여하려고 시도해 옴으로써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게 되며 에너지 사업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의 과제는 과거에 잘 하였던 천연가스의 배분에 대하여 회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블러셀씨는 이것에 대하여 AGL의 성적이 나빴던 석유 및 가스의 업스트림 사업과 재산에 의한 이익 생성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첫번째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점진적으로 종업원 수를 감축하여 1991년에 2,969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2,272명이 되었다.

5. 체질 강화와 사업 확장

이와 같은 체질 강화가 거의 완료됨으로써 블러셀씨는 이제 AGL를 다음 단계로 진입시킬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주의 천연가스 사업을 전국적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LPG)에도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인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AGL를 전기사업으로 진출시키는데 있어서 특유의 조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회사는 “전주와 전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는 조인트벤처 파트너를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95년에 AGL와 미국의 배전회사 GPU 인터내셔널은 빅토리아 주의 배전회사인 솔라리스 파워를 9억 5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매입하였다. 블러셀씨는 사업정리로 매각한 자산의 대금도 구입자금의 일부가 된 이 회사의 구입이 AGL가 언젠가는 그의 고객들에게 gas와 전기 모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6. 전략적인 조치와 고객 확보 대책

“그것은 AGL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라고 주식 브로커 회사인 ABS 화이트의 매니징 디렉터인 데이비드 레스니씨는 말하고 있다. “이 조치는 그 회사의 기능을 가스 이외의 다른 중요한 에너지의 형태에까지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

여 말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 확장의 목표는 AGL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스 공급 독점권을 상실한 후에도 수입을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시키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놓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다. 회사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새로운 고객 서비스 부서를 발족시켰으며, 판매 사원들로 하여금 투박하고 부피가 큰 판매 대장 대신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도록 함으로써 주문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 고객이 얼마되지 않았던 내륙 지역에서도 새로운 고객들을 맞아들였다.

7. 빠른 판단과 환경에의 적응

“블러셀씨는 규제가 완화된 시장에서 회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훌륭한 전략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인 증권의 선임 분석자인 러셀 랭그쉬씨는 말하고 있다. “그는 어떤 징조를 빨리 읽는다. 그리고 회사를 새



로운 사업 환경에 적응시킨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틀림없이 53세인 블리셀씨는 사업을 자기 손등처럼 환히 잘 알고 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동생도 모두 AGL에서 일했으며, 그의 아들도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블리셀씨는 산업통계와 정부의 예측을 실수 없이 그리고 막힘 없이 술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매니징 디렉터로서 처음 6개월간은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최고위직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수면 장애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8. 거대 기업들의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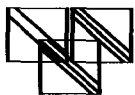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스 산업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에도 잠을 못이루는 몇 날 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BHP와 산투스와의 같은 에너지 거대 기업은 "가스를 찾기 위해서 미친듯이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AGL의 고객을 잡기 위해서 다운스트림 산업으로의 이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분석가는 관측하고 있다.

블리셀씨는 변화가 AGL에게 있어서 수월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가스와 전기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회사의 산업적인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앞에 가로놓인 큰 변화를 극복하는데 잘 대처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블리셀씨가 경영권을 잡은지 6년만에 이 회사는 그 역사상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과 가장 낮은 부채 비율(40%)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주식 가격은 1995년에 40%가 상승하였다.

블리셀씨에게 있어서 그의 현재의 목표는 과거처럼 똑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AGL를 보다 크게 그리고 보다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그는 종업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66.11.14)



말레이시아 — 독립발전사업자(IPP)와 과도한 발전 설비

1. TNB의 운명

한 회사의 장래성과 수명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져 되는 시점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해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전력공급을 맡고 있는 전력회사인 테네가 나쇼날사(TNB)의 경우는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1996년 9월에 이 국영 전력회사의 운수는 최저의 바닥을 기록하였다. 전국에 걸친 대정전사고는 국민으로부터는 경멸을 받아야 하였으며,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하티르

모하마드 수상으로부터는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주식 가격은 1994년의 높을 때의 20링기트에서 훨씬 낮은 9링기트(3.57달러)로 추락하였다.

2. 정전사고와 TNB의 시련

그러나 큰 재해는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구 경영 간부들이 떠나간 다음 전력회사는 TNB의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즉 독립발전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협상이 불가능한 계약에 따른 지불은 전력회사

의 금고 바닥까지 긁어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992년에 있었던 또 다른 전국적인 정전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전상태가 지나간 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부는 TNB의 발전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섯 개의 IPP들에게 전국 기간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였다. 그 당시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부족하였으며 TNB는 새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투자비 회수를 위한 최저 금액과 이익을 허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전기를 구입할 것을 명령받았다.

TNB는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는 무관하게 설정된 전기량을 구입하여야만 했다.

3. IPP의 등장과 TNB의 경영 악화

TNB에 대한 부담은 이제 엄청난 것이 되어 버렸다. 1997년이 되면 전력회사는 매년 독립발전사업자에게 연간 25억링기트(10억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의 지불도(1995년에 총지불금액이 10억링기트이었다) 이미 TNB 경영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TNB의 연간 세금 납부전 이익금이 1996년에 42%가 감소하여 5억 3000만링기트가 된 것이다. TNB의 증가된 비용은 전기사용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고 위험한 옵션인 것이다.

주식 가격의 하락은 대주주인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강력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TNB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주식 가격의 최고치에서 떨어진 가격에 의해 입은 손실액은 220억링

기트에 달하는 것이다.

4. TNB 주가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제동

1996년 초에 정부는 IPP들이 건설하는 더 큰 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마하티르 수상을 통해 발표하였다. “우리는 IPP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줌으로써 TNB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마하티르 수상은 말하였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마도 TNB의 미끄러져 내려가는 주가가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마하티르 수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NB의 새 책임자 아마드 타주딘에게 손상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TNB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 정부관리는 말하고 있다.

5. 다시 TNB에게 미소짓는 운명의 여신

틀림없이 정부는 TNB와 많은 분석가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전력부문의 규제 완화가 충분한 계획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발전설비의 과다용량이 30%가 적정비율인데 비해 현재 말레이시아는 50%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제안된 정부의 조치

는 IPP들에 대한 말걸레를 벗은 이익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마 이익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르며,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현재 TNB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두 개의 다른 전력사업자에 의한 야심찬 계획을 보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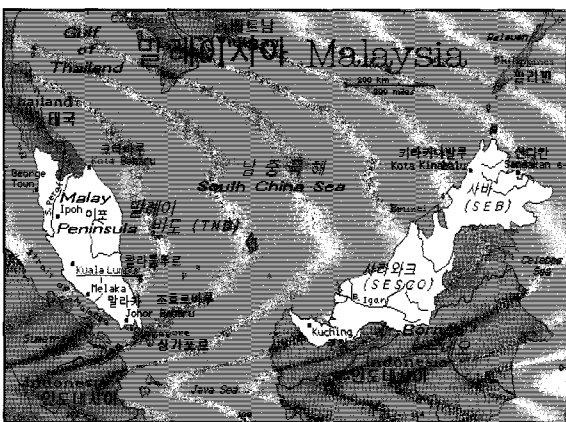
6. 신규 IPP 사업의 보류

두 개의 사업체는 최근에 팔라렘푸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파워테크와 말레이시아 북부의 펠리스주에 30만kW 발전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테네가 테크놀로지 펠리스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워테크의 사업계획서는 44만 kW 발전소를 66만kW로 설비용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정부에 신청하였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리는 “아무 것도 계획이 취소된 것은 없다. 시행 시기가 늦추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2003~2004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7. TNB 주가 회복의 징후

테네가 테크놀로지 펠리스는 발전 전력량의 최소한 50% 이상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1995년에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태국 당국과의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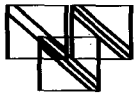
롬푸르의 한 에너지분석가는 "TNB가 발전 출력 전부를 구입할 도리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태국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를 결코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덧

붙여 말하고 있다.

독립발전사업자들의 고삐가 조여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TNB 주가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정전사고 이후 주가는 거의 완전한 링기트 즉 현재

10링기트 동전 하나에 가까워짐으로써 투자자들의 어두운 앞 길에 약간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자료 :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6.11.7)



몽골 — 검은 황금에 대한 기대

미국의 한 석유 회사가 몽골에서의 시추에서 유망한 유전을 발견하였다. 사업에 친근한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발견이 이 나라를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1. 코낙 술병과 검은 황금

에드 스토리씨가 1996년 4월에 올란 바트르에서 몽골 국제 항공편에 탑승하였을 때 그는 면세품 코낙 한 병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베이징 국제공항의 세관에서 걸리지 않고 통과해서 항공기를 무사히 갈아 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 이 코낙 병은 그가 사업 출장을 마치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코낙 병 속의 호박색 술을 진한 침전물로 바꾸어 넣었으며 이 진한 침전물은 몽골의 원유인 검은 황금으로서 이것을 그의 텍사스에 있는 시험 연구소로 가지고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결과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인 소코 인터내셔널의 사장인 스토리씨가 감히 희망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몽골의 탐사 분지에서 뽑아 낸 이 기름은 최상의

품질임이 판명되었다. 이웃인 중국의 어디에서 발견된 것보다 품질이 월등한 것이다. 그리고 몽골이 소련의 보호 아래 간혀 있던 몇십 년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던 지질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석유를 뽑어 올릴 수 있는 들판이 엄청나게 광활한 것이다.

2. 아시아의 스위스 또는 쿠웨이트

휴스턴의 테리토리얼 리소시즈의 빌 펜텔라 사장은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몽골을 아시아의 스위스 또는 아시아의 쿠웨이트로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몽골의 석유 개발 잠재능력을 분석하는 데 7년간을 소비하였다. 그리고 소코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세계에 걸쳐서 일을 했다—이집트에서, 알래스카의 프루드호 만에서—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몽고는 알래스카의 완전

한 재현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는 거침없이 힘차게 말한다.

이와 같은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은 어찌면 약간 과대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몽골의 새 사업에 적극적인 정부는 1996년 6월에 집권한 후 민영화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새로 발견된 석유는 이미 중국에 형성된 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몽골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데 윤활유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석유 산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몽골의 멘드사이한 엔크사이한 수상은 말한다. 소코의 석유 발견은 "몽골 경제의 그림을 엄청나게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남쪽 국경 너머에 엄청나게 큰 석유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3. 새로운 정보와 하와이의 동서센터

물론 "주요" 석유 발견은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 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서부의 타림 분지는

1980년대에 석유 회사들에 의해서 '다음의 큰 발견'이라고 예고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는 독립된 분석가들조차 광활한 석유 매장량이 있다는 것에 낙관적이며 원유의 추출, 처리 또는 추출을 위한 기반 구조설비가 너무나 철저하게 절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와이에 있는 동서센터의 에너지 경제학자인 짐 도리안씨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하면 매우 유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겨우 몇 년전의 일이었다. 보다 정밀한 측정에 의한 상세한 지질학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4. 성공적인 두 개의 갱정과 흠련

콜로라도 덴버의 피트리파크먼을 위한 독립된 석유 및 가스 저장업을 하는 팀 로만씨는 "나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의견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소코는 대상 지역의 위치 선정을 정말 예리하게 하였으며, 네 개 중 두 개의 갱정이 매우 우량한 품질의 기름을 정통으로 맞추었다. 그렇게 많은 위험부담이 예상되어 있었으며 이제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흠련을 맞힐 수 있으며, 이것은 이 회사를 크게 변모시킬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소코는 해외 벤처에서 초심자는 아니다.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니더 오일의 국제 부문 담당 회사로서 소코는 중국, 러시아, 태국, 예멘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된 사업은 역시 미국내에서 영위되고 있다.

5. 탐사그 분지의 검은 황금

몽골에서 소코는 탐사그 분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땅에서 4만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대한 탐사권을 확보해 놓고 있다. 시험 갱정과 지질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채취 가능한 석유가 5억에서 10억배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소코의 책임자인 스토리씨가 추정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추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탐사그는 산업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위대한" 유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베리아 들판 또는 카스피해 주변의 몇몇 유전 군락들과는 전연 비교도 안되는 것이다.

엑스플로레이션 어소시에이트의 펜티라씨에 의하면 소코는 이제 겨우 빙산의 끝에 닿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 회사가 6년전부터 조사를 하였으며—몽골이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였을 때—유지에 둘러싸인 이 나라에 채취 가능한 석유를 60억배럴로 추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채취 가능 잠재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들의 개략적인 초기 측정에 의해서 확신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6. 41 API 그레비티의 품질

스토리씨가 중국 세관을 몰래 통과하여 가지고 나온 코냑 병에 든 원유는 시험 결과 41 API 그레비티(유황 함량 및 침투성에 대한 미국 석유학회의 척도)로서 "이것은 최고의 품질로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토리씨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인 개발자들이 발견한 어느 원유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다킹 유전은 34 API 그레비티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몽골은 다음의 알래스카이다. 그러면 왜 다국적 석유산업의 거대 기업들이 그동안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해답은 정치가 몽골을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다. 동서센터의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에너지 및 광물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도리안씨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련이 시베리아와의 경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에 몽고의 미처 성장하지도 않은 석유 산업의 꼭지를 잠가 버렸던 것이다.

7. 의욕적인 새 몽골 정부의 출범

1996년 6월에 민주연합의 제후체가 집권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평형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23년 이후 몽골을 지배하였던 공산당의 잔재들이 축출되었다. 새 정부는 과거에 축적해 놓은 지질학적 자료를 자신해서 공개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는 기업체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

나라 새로운 탐사를 환영하였으며 이를 위한 촉진책을 마련하였다고 석유사업 종사자는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 탐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기 착공 범주에 올려놓기 위하여 엔크사이한 수상은 1996년 10월에 몽골석유공사를 수상의 직접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수상은 “나는 한마디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몽골이 건강한 사업 환경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굳게 다짐한다. “개인 재산에 대하여 확고하고 엄격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대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8. 몽골 정부의 철저한 뒷바라지

그것은 몽골의 전 정권에 비하면 근본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이다. “석유 산업을 위한 환경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정부를 당신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펜티라씨는 말한다. “중국과의 국경 문제, 기술적인 문제, 관료적인 문제—우리가 거쳐야 하는 모든 문제들은 수상에게 전화를 걸기만 하면 즉각 해결이 된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내의 석유 회사들은 극복하여야 할 몇 가지 만만찮은 지리학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철도의 개설과 확장에 4100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철도 체계는 너무나도 원시적이다. 이 나라에는 정유 또는 송유관과 같은 설비가 전연 없다. 이웃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석유 발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문제 때문에 활발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분석자들은 잘 알고 있다.

9. 석유산업과 사회 기반 설비

그러나 탐사그 분지의 경우에는 사회 기반설비가 그렇게 많은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소코의 스토리씨는 강조한다. 이 지역은 마치 중국의 석유 생산지인 내몽골에 조랑말의 머리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몽골은 하이라얼에서 일일 3만 5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한가한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다. “전 용량 가동에 도달하려면 많은 해가 소요된다”라고 스토리씨는 말한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국경의 양쪽 방향으로 송유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트럭에 의존하는 육상 운송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국측에는 훌륭한 철도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1700만달러를 그 투기적인 사업에 투자한 소코는 이제 연중 가

동시킬 수 있는 방한 장비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토리씨는 말한다. 그리고 “연내”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수출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그는 “몽골에는 실질적으로 석유 산업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유자격자가 없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10. 인구 230만의 몽골

내륙에서 개발 사업을 더 추진하게 되면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걸신들린 석유 수요는 더욱 더 이 사업을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스토리씨는 말한다.

그렇게 많지 않은 석유에 의한 수입 일지라도 몽골의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30만명의 인구가 그 넓은 국토에서 살고 있으며 1995년에는 1억 4000만달러 어치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그 99%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인 것이다.

테리토리얼 리소시즈의 펜티라씨와 같은 몇몇 인사들은 몽골의 잠재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있다. “몽골은 이제 20세기로 세기가 바뀔 때의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의 서부를 나에게 연상하게 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유전이 있었다. 이제부터 1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몽골에서 석유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먼 훗날을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6.10.31)

